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 앞에(찬26/새22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정우영 장로 2부/천승현 집사 3부/최규덕 장로 4부/박범준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예수를 믿는 마음 (편곡 최은하)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38-42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2:13-22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5) 복수復讐 말고, 복수復讐로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6) 왕의 만찬에 초대된 자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사명의식

Sense of Responsibilit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얼마 전, 텍사스 우벨디(Uvalde, TX)에 있는 한 초등학교(Robb Elementary School)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일을 슬퍼하며, 총기 사고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들로 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이때, 뜨겁다 못해 더 열 받치는 뉴스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총기 난사가 있었던 학교에 경찰이 19명이나 출동해 있었음에도 더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는 목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을 한 시간가량 지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자신들이 위험하니 더 많은 지원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찰국장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절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한동안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민간인이 사건 현장에 뛰어 들어가려 했다면 무모하게 희생될 수 있으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이를 감수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절박한 한 시간 사이에 수도 없이 911 구원 요청 전화가 교실에 갇혀 있던 아이들로부터 걸려 왔지만 경찰은 더 많은 경찰 요원들이 오기를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있는 경찰들을 보다 못해 국경수비대가 경찰국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교실로 잠입해 용의자를 사살함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며 흥분해 보긴 정말 오랜 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직무 유기다”라고 뉴스를 보며 저는 분통이 터져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놀라서 총기난사 범에게 분노했지만, 이 뉴스를 듣고 나서는 용의자보다 경찰에 더 화가 났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자기 죽을까 봐 총을 내려놓고 머리를 쳐박고 있는 군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군사재판에 소환될 것입니다. 불침번을 서는 병사가 졸다가 적의 습격을 알리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전시 중이라면 사형감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잃어버린 군인이나 경찰은 단순히 태만을 넘어서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가 생명처럼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무엇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우벨디 총격 사건으로 자녀들이 희생된 부모님들의 하염없는 눈물을 보면서 현장에 도착하여 바로 진입하지 않았던 경찰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마 5:14)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오늘도 가슴 떨며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닌, 등경 위에 두는 순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Not too long ago, 19 students and 2 teachers from an elementary school (Robb Elementary School) were killed in a gun incident in Uvalde, TX. The entire nation was saddened by the incident. Many politicians were in heated arguments with different opinions on how to resolve the gun issue. In the midst of this, a news broke out that was not just heated but explosive. The news was that there were 19 police officers summoned to the school site at the time. However, they refrained from rescuing the students for about an hour waiting for more help to come. There was a direction from the police chief, and ultimately the police officers at the scene, in fear for their lives, decided to wait for more support to arrive. Upon hearing this news, I screamed at them. With rising anger inside, it took some time for me to settled down. If an ordinary citizen wanted to jump in to help, that person would have been stopped from a potential futile sacrifice. However, police officers are trained for such event. No matter how dangerous the situation, they should have gone in to rescue the children. The news said that during this one hour, there were numerous 911 calls coming from students in the classroom. But the policemen stood outside waiting for more help to arrive. That is not until the border patrol team stepped in, ignoring the police chief's direction and waiting policemen, to bring the incident to an end. They entered the classroom and killed the perpetrator. It's been a while since I had been this excited about a news story. "That is being irresponsible policemen" I shouted with great disappointment as I watched the news. "How could this happen..." I was in shock, initially angry at the criminal. But after listening to this news, I was angrier at the policemen than the perpetrator. These policemen forgot their mission. They totally forgot their responsibilities.

What would happen in a war if a soldier puts down his gun and hides his head in fear of losing his life? He will probably be prosecuted in a military court. What if there were casualties because a guarding soldier fell asleep and was unable to notify infiltration of enemy? More than likely, during a war, he may even be executed. Whether you are a soldier or a policeman, you can bring much harm if you forget what you are responsible for. What if the harm is life? If you lose it, it would never be restored. How can you be responsible for that? As I watched the parents in tears for their lost children, I became upset at the policemen who did not intervene at the scene. Those that have been called by God, let's make this event a reminder to refresh our mission. As we stand before God's message, which reminds us of our missio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Matt 5:14), may we obey with our hearts to set our lights on a stand and not hide it under a basket.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5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복수復讐 말고, 복수複數로
(마 5:38-42)

설교자: 김한요 목사

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를 실천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였습니까?

적용하기



2. 9절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참고/ 출 21:22-25, 신 19:17-19)

1) _____

2) _____

3.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처방은 '복수'입니다. 어떤 복수일까요?

1) _____ (39절, 참고/ 고전 4:3-4)

2) _____ (40절, 참고/ 롬 12:17-19)

3) _____ (41절)

4) _____ (42절, 참고/ 갈 5:23)

4. 예수님의 처방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음 참고 구절을 읽고 힘주심을 구하십시오.(참고/ 갈 2:20, 눅 23:34)

■ 적용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교육부 - 소망부

아름다운 모습 보며 머물기



코비드로 조심스러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소망부는 5월 14일(토)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렸던 제37회 '사랑의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 행사에 남가주 24개 교회와 25개의 여러 단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40명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여,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렸고, 각 교회와 단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음식을 나눌 수 있었던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축제에 함께 동행해주신 소망부 선생님들과 봉사자로 섬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 내내 밝은 모습으로 함께한 소망부 지체와 부모님들, 함께 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종현 집사(팀장)

소망부는 연약하고 장애(신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성경말씀 공부하며, 놀이를 통해 예수님 전하는 전도 연습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주일예배, 토요 학교(봄, 가을), VBS, 사랑의 축제 (5월, 12월), 봄과 가을 가족 소풍, 소망부 뱅캣(12월)등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토요 학교는 펜데믹으로 지친 부모님들과 소망부 친구들에

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일예배 때 미처 다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더 공부하고 신체도 단련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토요 선생님들과 주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박정민 전도사

20년 전, 대학입시 준비로 소망부에서는 섬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언어 치료사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통하여 언어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 분야인 speech pathology(언어 치료사)를 알게 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베델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던 중 예수님 셀식구를 통해 소망부를 알게 되면서 20년 전 내 안에 주님이 뿌리신 씨앗이 싹을 트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망부 지체들 대부분이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찬양을 노래가 아닌 울동으로 하는 것을 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유난히 말이 없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제 모습이 떠올라 아이들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소망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니얼장 형제(교사)

소망부를 우연히 알게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소망부는 체육관 옆 한글학교 건물 1층에 교실이 있습니다. 소망부 친구들은 6세에서 40세까지 다양하게 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일 2부와 3부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토요 학교를 오픈해서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다양한 액티비티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소망부 친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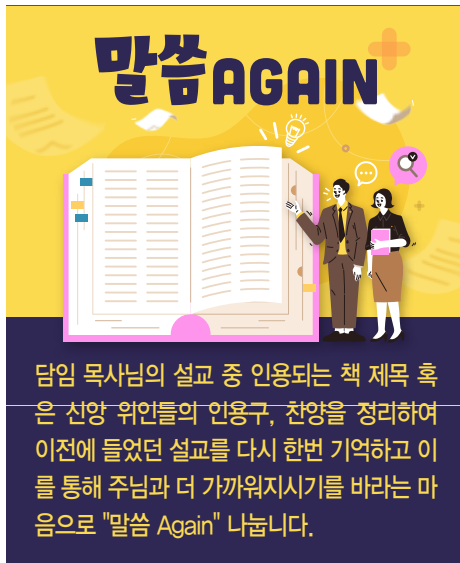
오경희 집사(교사)

소망부 토요 학교에 평신도 사역의 소명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망부 토요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확장된 시간을 제공하며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통

하여 복음을 심어주는 선교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TA들은 토요 학교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과 삶의 기본 원리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 찬양하고 게임과 운동, 특별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소망부 가족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기쁨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채용석 집사(교사)





"Christian Reflections" by C.S. Lewis.

(6월 27일 2021년 설교 중에서)

C.S. Lewis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기에 웃을 잘 차려입었지만, 갈 곳 없는 무신론자가 누워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묘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그는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누워있기를 원할 겁니다."라고 C.S. Lewis는 이 책의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있다고 하는 무신론자. 자신이 어디에 가게 되는지를 안다면 그냥 여기 이 무덤에 누워 있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했던 바울을 통해, 우리도 삶의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이 가졌는가?'

(8월 15일 2021년 설교 중에서)

사도바울이 떠난 뒤, 빌립보 교회 안에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하는 상황을 보고,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잠 놓고 갈 만한 사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왔던 배 끼치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고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함석헌 시

내 옆에 '그 사람' 있는지 찾기 전에 오늘 나는 '그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매일 새롭게 부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개조심

(8월 22일 2021년 설교 중에서)

1970, 198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였던 이만재 씨의 『세상 속의 막 찢은 전빵』은 저자가 40대 후반이던 1990년 화창한 봄날 가수 윤형주에게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딘 이후, 크리스천으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신의 삶에 대한 솔직한 기록입니다. 내 학식과 능력만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미친 한 영혼의 따뜻하고 순박한 이 회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저자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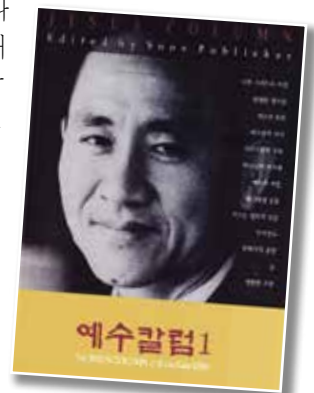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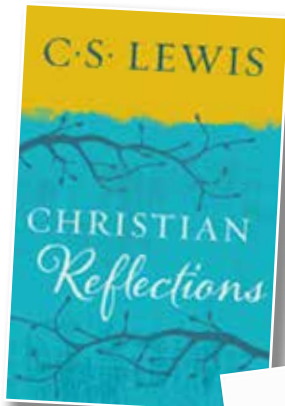
습이 꾸밈없이 솔직, 유쾌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자 이만재 씨는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윤형주 장로님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형주씨의 지성은 놀랍다. 혹시라도 제가 전도한 초보 신자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나 같은 사람의 게으름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셀 식구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좋은 밤에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안주 앞에 놓고도 술 한잔 찾는 법 없이 도란도란 마냥 즐겁기만 한 이 별종의 인간들. 마치 외계에서 비행접시를 타고 내려온 우주인들 같다. 저녁시간 성인 남녀가 식당에 모여서 술도 없이 그냥 땡땡안주만 먹어본 희한한 첫 경험! 그런데도 왠지 기분은 까맣게 없이 좋다."

김준곤 목사 [예수칼럼]

(8월 22일 2021년 설교 중에서)

사강은 '어떤 미소'를 썼다. 살벌하고 처절한 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크리스천에게는 어떤 여유,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신앙적 유머 혹은, 품성의 해학적 매력이라 해도 좋다. 지금은 주부가 된 내가 사랑하는 CCC의 한 자매가 있다. 아무리 긴장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가 말하면 모두들 영혼 속까지 웃음의 문이 열린다. 구린내로 모두들 상을 찡그린 분위기에서 맛있는 멀치쥬 냄배 같다고 할 사람, 파사로운 햇볕 같이 만나기만 하면 모두들 행복을 느끼는 밝고 포근한 자매, 자기 자신은 항상 담백하고 욕심이 없다. 그와 반대로 서릿발 같고 먹구름 처럼 저기압을 몰고 다니는 보기만 해도 오싹한 사람이 있다. 크리스천은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예수같이 느껴지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한다.



새가족 소개

38마일, 충분합니다~



작년부터 저희 부부는 새로이 섬길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시아버님께서 얼마 전 주님 곁으로 갑자기 떠나신 이후, 섬기던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교회를 기도로 준비하던 중, 베델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저에게 김한요 담임목사님께서 매년 어려운 부분들을 영어

로 설명해 주시니 설교 말씀이 이해가 쉬웠고 더욱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화면으로만 예배에 동참하던 중, 대면 예배 소식에 저희 부부는 토랜스에서 얼바인까지 거리는 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해 주신 모든 사역자분의 노력이 느껴졌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분명했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대면 예배를 통해 저희 부부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김은혜 집사님과 한순과 전도사님께서 편안하게 환영해 주셔서 한 주 한 주 교회로 가는 길이 신이 나

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속해있는 셀모임에 연결이 되었고, 그때 비로소 여기가 나의 교회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나누고, 나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을 기도로 함께해 주는 셀식구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많은 힘과 위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38마일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고, 매주 말씀을 통해 얻는 은혜가 기대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셀식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신앙의 뿌리를 이곳 베델교회에서 기쁨으로 내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멜리사정 성도

베델 선교 - 쿠르디스탄

순종의 열매



용기내어 첫 선교지로 쿠르디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셨고, 선교지에서의 순간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가까워 오면서부터는 염려와 걱정들로 긴장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가림이 심한 내가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팀원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올 수 있을까? 전쟁이 난 상황에서 지금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쿠르디스탄은 과연 안전한

곳일까? 하지만 막상 선교지에서 사역으로 섬기면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은 어느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뉴비전 교회와 연합으로 팀을 이루어 "One Team"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각자 맡은 사역들을 한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그 민족들과 같이하면서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응원, 기도, 물질의 후원으로 선교를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겁 많고 생각 많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힘든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열매를 허락하셨고, 나는 그저 그것을 하나씩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꿈같은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미선 자매



선교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었지만 막상 결단하기에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제한적이기도 했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겁 많고 약한 내가, 심지어 안팎이 어려운 지금 이 시점에 선교를 갈수 있을까? 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다녀오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른 날짜로 잡혀있는 쿠르디스탄 선교에 등록해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영아부, 유아부 VBS

지역광고

초등부 VBS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영, 유아부 여름 성경 학교가 올해는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영아부와 유아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존재인가를 선포합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아부 VBS에서는 다양한 Craft와 Activity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배우게 됩니다. 유아부 VBS에서는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될 것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양한 놀이 기구와 사진 부스, 페이스 페인팅이 준비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영아부와 유아부가 함께 하는 올해의 여름 성경 학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6월 7일(화)~6월 10일(금)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 장소: (예배) 유년부실(영아부와 유아부 합동 예배)

(특별 활동) 영아부-영아부실

유아부-할렐루야 채플

▶ 문의: 영아부-김숙영 권사 (949)861-0602,
유아부-티나정 전도사 (213)407-5239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022 베델교회 VBS가 Zoomerang! [Returning to the Value of Life]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편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놀랍고 완벽하게 지으신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등부 학생들은 학년별로 바ই블 스터디, 스몰그룹, 스낵 크래프트, 사이언스, 크래프트, 게임 등, 6개의 스테이션을 돌며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신나는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VBS 리더 봉사자들이 매주 훈련과 모임을 하며,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VBS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 일시: 6월 14일(화)~6월 17일(금) 오후 1시~6시 30분

6월 18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대상: Kinder-5학년

▶ 문의: 최병웅 집사 (714)586-670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I

6/12: ①부-한상섭	②부-최병웅	③부-최영수	④부-윤여훈
6/19: ①부-최주상	②부-최호경	③부-탁정호	④부-유희정
6/26: ①부-한 일	②부-한 존	③부-한태성	④부-이영진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6,7월) I

6/11: 박기홍	6/18: 김호선	6/25: 박선암	7/2: 박선재
-----------	-----------	-----------	----------

강단꽃(6월) I

6/5: 지효정	6/12: 박세환, 조기옥	6/19: 김한요, 박경철, 서예원	6/26: 김보라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진(한외과), 간호사-신정연

다음주 | 의사-오홍길(외과), 간호사-장한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익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일예배 안내** 6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문구 목사께서 수요일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하시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나눔으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매주 오전 10시, 본당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셀모임안내** 셀 모임은 6월 말까지 진행하고 방학하게 되오니, 끝까지 말씀 붙드는 셀모임 되시길 바랍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1년 또는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반, 양육반, 바이블클럽, BAM훈련, 전도폭발 수료식이 6월 19일(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주시고, 많이 축복해주세요.

◆ **제9회 유영 장학생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2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기탁받은 유영 장학금 1만 불을 선교사 자녀 중, 특별히 2-3명을 따로 선발해 지급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수)-6월 30일(목)
문의: 황세현 집사 scholarship@bkc.org, (949)391-9497

◆ **장학 특별 현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 특별 현금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고등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비치된 지정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현금 시 '장학 현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온라인 현금도 가능합니다(Tithely)

◆ **VBS 준비 연합 모임** 2022 VBS를 준비하는 봉사자 연합 모임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일시/장소: 6월 5일(주일) 오후 1시-3시, 체육관

◆ **6월호 큐티인 판매** 교회학교 큐티인 6월호 영문판이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6월 한 달도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상 : 영아-킨더(새규), 1학년-5학년(여규)

◆ **베델 아기학교: 마미 앤미 학교 교사 모집**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중 프로그램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어 마미앤미 학교로 돌아옵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모든 분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 (2, 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VBS 교사 및 TA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VBS를 위한 교사를 찾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과 TA들은 이번 주(5일)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VBS 일시: 7월 19일(화)-7월 22일(금) 오전 9시-오후 2시
문의: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BYM Summer Fish Festival Sign Up** 하신 모든 BYM의 자녀분들은 교회에 3시까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비 \$25 지참 요망)
일시: 6월 11일(토) 오후 3시
문의: 현호승 전도사 (949)677-6911

◆ **웨딩사역 안내** 경조팀에서 웨딩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결혼식에 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웨딩 계획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순고 전도사 (714)612-4075

◆ **홈페이지 안내** 베델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현금 Subsplash 중단 안내** 기존에 온라인 현금 방법 중 Subsplash 서비스는 6월 15일(수)부터 중단됩니다. Tithely는 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현금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수민 집사 (949)854-4010 ext. 112

◆ **교회 건물 평일 소등시간 안내** 안전을 위하여 밤 10시 30분에는 교회 전체 소등 및 문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사역이 늦어지는 경우 교회 행정실에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큐리티팀 모집** 한 달에 한두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교회 보안, 교내안전 점검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황시군 집사 (714)350-3524

◆ **축하해 주세요**
- 박주희/Yegor Tsurikov 가정에 아들 Aaron이 지난 5월 16일(월)에 태어났습니다.
- 김윤현 형제와 이예지 자매의 결혼식이 6월 4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및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Give More, Not Revenge

(Matthew 5:38-42)

1. Have you ever carried out in real life the saying, "Eye for eye, and tooth for tooth"? When was this?

Apply to Life



2. An explanation is needed for verse 39,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What is meant by this statement? (Ref: Ex 21:22-25, Deut 19:17-19)

1) _____

2) _____

3. If one is treated unfairly or feels cheated, Jesus teaches us to give more in return. What are these?

1) _____ (v. 39, Ref: 1Cor 4:3-4)

2) _____ (v. 40, Ref: Rom 12:17-19)

3) _____ (v. 41)

4) _____ (v. 42, Ref: Gal 5:23)

4. We, ourselves, don't have the strength to carry out the teachings of Jesus in these cases.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ask Him to give us strength. (Ref: Gal 2:20, Luke 23:34)